

을지로 페인트 작업장에서 화재

2월2일 오후 2시30분께 발생 ... 화재원인 · 피해규모 조사중

2월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덕수중학교 옆 2층짜리 건물의 1층 페인트 작업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5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김모(55)씨가 얼굴과 손가락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건물 안에 있던 나머지 인원은 바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건물 안에는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있어 대형 화재가 우려됐으나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15명과 자동차 3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진화차량이 을지로4가 역부터 현장까지 일방도로 3차선 전체를 점유하면서 일대 자동차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4>